

광주·전남 25개 상장사 주식현황 분석해 보니

지역투자자들 고작 4.61% 보유

광주·전남지역 상장기업에 대한 지역민들의 주식보유 비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가치가 높은 지역 대기업일수록 지역민들의 주식보유 비율이 미미한 반면 주식 위주 보유가 많아 지역민들의 얇은 주머니 사정을 반영한 높은 수익률도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1일 증권에탁결제원 광주지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광주·전남 지역 25개 상장법인의 보유주식을 분석한 결과 지역민이 차지하는 비율은 4.61%에 불과했다.

광주·전남지역 25개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총 3조3천627억원으로 이 가운데 광주·전남지역민이 보유한 금액은 1천551억원에 그쳤다.

이처럼 지역민들의 지역 상장사 주식보유 비율이 낮고 주식 위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상장기업 특성상 거래가 원활해 주식분산이 잘

금호산업 0.7%·광주신세계 0.5% 그쳐 투자 여력 없어 고가주보다 저가주 선호

된 데 원인이 있지만, 광주·전남지역민들이 열악한 경제사정으로 투자 여력이 적어 주가 비싼 상장사 주식보다는 주가가 낮은 주식을 찾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종목별로는 금호산업 상장주식 가운데 지역민의 보유비율은 총 933명이 35만3천536주인 88억7백여만원어치로, 회사 전체주식의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호타이어도 7천만주 8천820억원의 발행주식 가운데 지역민이 보유한 주식은 1천777만2천여주 223억2천700만원으로 2.52%에 머물렀다.

광주신세계의 경우도 160만주 2천592억원의 발행액 가운데 지역민이 보유한 주식은 0.5%에 불과

하며 셀렌 3.54%, 금호종금 0.46% 등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가운데 주가가 낮은 동아에스테이 61.41%로 광주·전남지역민들의 주식보유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화천기공(18.7%), 보혜양조(18%), 고려시멘트(11.26%), 로케트전기(8.4%), 조선내화(6.17%) 순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주가가 낮은 해원에스티(56.7%) 주식 보유비율이 가장 높았고, 행남자기(43.2%), 서산(35.5%) 부국철강(주) 30.11%, (주)파루 23.06% 등 순이었다.

주주수 비중에서는 금호타이어가 2천109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호산업(933명), 파루(607명), 로케트전

기(431명), 대신정보통신(423명), 금호종합금융(248명), 광주신세계(223명), 보혜양조(192명) 등이다.

한편 주식시장 상장 전 단계로 증권에탁결제원 광주지원에 통일규격증권을 맡겨둔 광주·전남지역 기업은 총 18개사로 이들 주식을 보유한 지역민 주주수는 삼성광주전자가 1천211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이버타운 522명, 광주는 행 433명, 휘라포토닉스 286명, 우리리광통신 197명, 읍서넬캐피탈 187명 등이다.

증권에탁결제원 광주지원 관계자는 “지역 투자자들은 지역 상장사 주식 보유비율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열악한 지역 경제 사정을 반영한듯 기업가치와 주가가 높은 상장사 보다는 주가가 낮은 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경향이 뚜렷해 수익율도 낮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기아차 슈라이어 부사장  
영광예술대 명예 박사

기아차의 디자인 총괄책임자(CDD)인 피터 슈라이어 부사장이 자동차 디자인 분야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29일 영국 왕립예술대학으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슈라이어 부사장은 학위수여식에서 “기아차는 내게 브랜드 디자인과 그 특성을 개발할 기회를 줬다”며 “9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전세계 자동차 업체를 깜짝 놀라게 할 ‘기아차 미래 디자인’을 내놓을 것이다”고 말했다.

기아차는 지난해 기아차 고유의 디자인 개발을 위해 ‘유럽 3대 자동차 디자이너’로 꼽히는 슈라이어 부사장을 영입했다.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금융기관, 지역신보에 年 90억 추가 출연

담보력 취약 소상공인 보증 기회 늘려

중소기업청은 지역신보보증재단 출연대상인 금융기관 대출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지역신보보증재단법 시행령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금융기관이 지역신보에 출연금을 내야하는 대상이 기존의 ‘대출금’이 아닌 ‘은행 대차

대조표상 대출채권’으로 명시됐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대출금이면서도 그동안 지역신보 출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모사채, 팩토링 채권이 출연대상에 포함됐으며 원화 대출금과 차이가 없는 외화대출금 등도 출연대상에 추가됐다. 그러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시설자금 대출

금은 지역신보 출연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중소기업청은 설명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지역신보 출연대상 대출금 범위조정으로 금융기관은 추가로 연간 90억원 가량의 지역신보 및 재단연합회에 출연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담보력이 취약한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농협, 새 CI로 ‘비전 2015’ 도전

농협중앙회가 1일 창립 46주년 및 통합농협 7주년을 맞아 ‘비전 2015’ 선포식과 CI 선포식을 갖고 2015년 대한민국 No.1 유통·금융리더를 향한 대장정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농협은 ‘농협이 가는

길’이라는 경영철학을 표방하고 ‘농업인·고객본위’, ‘상생추구’, ‘최고지향’, ‘신뢰중시’를 조직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삼을 예정이다.

이같은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농협은 ‘비전 2015’-‘대한민국 No.1 유통·금융리더’를 선포했다.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또 농협은 이날 비전선포와 동시에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움 발전’ ‘유통 금융시장의 새로운 변화의 물결’의 의미를 담은 새로운 CI로 사용될 커뮤니케이션 브랜드 ‘NH’를 공개했다.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광주일보·중기청 선정 ‘6월의 자랑스런 중소기업인’ 박정희 왕인식품 대표

“청정 ‘미가’ 한국대표 김치로 만들터”

‘위생 관리’ 인증 획득  
올 40억원 매출 기대



“올 초 설비자동화, 공정혁신 등을 마무리한데 이어 지역대학과 연계, 기능성김치 개발에도 관심을 가질 계획입니다.”

지난달 29일 광주일보사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이 공동주관한 ‘6월의 자랑스런 중소기업인’ 시상식에서 박정희(54) 왕인식품(영암군 군서면 성양리) 대표는 “중국산 김치에 대응하기 위해 올 안에 식약청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시스템) 인증을 획득, 위생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HACCP 인증획득은 지난해 기생충알 사건, 중국산 김치 수입 등으로 한때 휘청했던 수출물량 회복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향후 일본 뿐 아니라 미국 등 수출국가를 다변화하고 수출물량도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6월의 자랑스런 중소기업인’ 시상식이 지난달 29일 광주일보사 16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김진영 광주일보사장, 박정희 왕인식품 대표, 박춘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최해태기자 choi@kwangju.co.kr

식품유통업은 운영하던 박 대표에 의해 지난 2000년 설립된 왕인식품은 이듬해 위생적이고 표준화된 김치 ‘미가(味家)’를 일본에 수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삼성광주전자를 비롯해 기

아차 광주공장, 현대삼호중공업 등 지역내 대기업 식당은 물론 초·중·고 학교급식으로 납품돼 남도 대표 김치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왕인식품에서 생산되고 있는 김치는 배추김치·갓김치 등 8종으로, 연간 2천에 달한다.

박 대표는 “미가가 해남·무안 등지에서 나는 배추와 무, 신안군 도초면의 천일염, 영암 인근에서 생산되는 양념에 철저한 위생관리시스템을 통해 무균 청정식품이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며 “기생충알 사건, 중국산 수입 등 어려운 환경들

이겨내고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37명의 직원을 보유한 왕인식품은 2005년 매출 19억4천만원, 2006년 27억7천800만원에 이어 올해 40억원의 고성장이 예상된다. 지난해 4억원을 밑돌았던 수출액도 올해는 5억원을 넘을 전망이다.

왕인식품은 ISO9001 및 농림부 전통식품 인증과 함께 노동부 클린사업장과 중기청 기술혁신형중소기업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농협전남본부장에 이덕수씨

박용순 前본부장 상무 승진

이덕수(56) 농협중앙회 전 여신부장이 3일 제 30대 농협전남지역본부장에 취임한다.

지난 73년 농협에 몸담은 이 본부장은 강원연수원 부교수, 강진군지부장, 구례교육원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강진출신으로 강진농고, 농협대를 거쳐 서강대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

전임 박용순 29대 본부장은 1일 상무로 승진, 중앙회 준법감시인에 선임됐다.

박 상무는 2년여의 본부장 재임기간 동안 전남쌀 우수브랜드 육성, ‘1사1촌’ 제정, 음식점 원산지 자율



〈이덕수 본부장〉 〈박용순 상무〉

표시 운동 활성화, 도단위 광역브랜드인 ‘햇빛’과 ‘해두루’ 개발, 국내 최초 실물펀드인 ‘지리산 순환한우 펀드’ 출시 등 여러 방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남광건설 대표이사  
김우원씨 오늘 취임

광주시도시공사 사업이사로서 지난 김우원(63)씨가 2일 남광건설 대표이사에 취임한다.

함평 출신인 김 대표는 전남대 토목공학과와 산업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광주시 상수도본부 기술부장, 호남대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先報日報 인터넷 신문  
www.kwangju.co.kr

**이타리가구 전문점**

**30% Off SALE**

1년 딱 한번  
7월 19일까지

www.hongpaek.co.kr

광주광역시 광구 동영로47길 구도상점  
062)225-7567

**(株) 행복출발은**

성숙이족 100주년 오직 1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특별한 혜택  
이제는 국내 최대 저축 계획을 무료로  
최고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기회  
각종 연금에서 월급까지 지급하는  
다양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원수 1위 한국 100대 기업 대표이사**

최대할인 혜택까지 특별 모임

100만 행복출발 (062) 527-3388